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기구·해외기업 등에 파견할  
인턴 선발 지원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OASIS\*)을 신규 추진한다.

\* Overseas Agriculture Sector Intern Scholarship

농식품부는 미래 농식품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고 향후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구, 해외기업·연구소에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들은 3개월간의 인턴십 기간 동안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해외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유엔전문기구와 미국 소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네덜란드 와게닝겐 연구소, 오스트리아 농업기술 전문기업인 Pessl Instruments 등 9개 기관이다. 선발 대상은 재학생(대학교 3학년 이상·석박사과정) 및 졸업생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각 25명 내외로 연간 총 5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FAO, IFAD 등 국제기구는 정규직 채용 시 인턴십 등 실무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에게는 이번 인턴십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화·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 가축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진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질병진단 심화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는 2012년부터 국내 가축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질병진단 심화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질병진단 심화교육은 4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및 민간 질병진단기관 총 7개 기관, 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9월에서 11월에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가축질병에 대한 병리, 바이러스, 세균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진단업무 수행 시 겪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질병진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가축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표준화와 진단기관간 기술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박주환 전무이사 취임  
취임식 대신 SI방역현장 방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2017년 12월 26일(화) 제6대 박주환 신임 전무이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주환 전무이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및 중복 제천 화재참사 인명 피해에 따른 전국민 애도를 함께하기 위해 전북 SI 방역현장 방문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박주환 전무이사는 방역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SI 조기종식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활동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으며,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가축방역 핵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환 전무이사는 1986년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도 지소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 식품산업과, 운영지원과, 경영인력과를 거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경북지원장을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식의약 안전정책 소개·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단체와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1월 11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11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간담회 주요 내용은 '18년 식의약 안전정책 소개, 소비자 단체와 소통방안 논의' 등이며, 식약처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소비자 단체장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해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행정안전부(총괄)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행정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민원만족도 분야를 종합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민원만족도 등 전 부문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42개 부처 중 최우수 등급 기관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운영 분야에서도 중앙부처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분야에서는 기관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추진, 민원추진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민원담당자의 역량과 사기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민원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관련법령 및 자체규정 개정 시 민원처리기준표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한 점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신속한 민원접수·이송·처리, 민원 답변내용에 대해 민원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체 해피콜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무식...개원 40주년 맞아  
기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2일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김창길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구원이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의 농정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했고, 각종 농업·농촌 이슈에 대한 TF 운영과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변혁의 시기를 지나 도약의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연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연구원 직원들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닫힌 방문을 활짝 열고, 서로 칭찬하는 연구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8년도 축산물HACCP 교육  
수요자 선호·필요도 적극 반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 인증원)은 1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경영인과정(정기)을 시작으로 2018년 축산물HACCP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2018년 축산물HACCP 교육은 '17년도 교육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육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회, 400명이 증가된 교육횟수 55회, 교육 정원 4,530명으로 편성됐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았던 축산물 가공·유통HACCP 경영인과정의 경우 지난해 보다 4회, 400명을 증가한 연 28회, 2,800명(1회당 100명)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선호 및 필요도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HACCP인증원은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를 위해 충북 오송의 본원 1층에 마련 중인 HACCP체험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시작하는 전문 교육과정에는 현장 Auditing 프로그램 과목 등을 개설하는 등 HACCP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번기, 가축질병 발생, 브랜드 및 농가 단체 인증 등 시기와 지역별 특이사항을 반영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인 특별교육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윤 원장은 “축산물HACCP 교육이 축산업계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의 축산물HACCP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축산환경관리원**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축산악취발생 예방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2017년 12월 11일 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18.2.9~3.20)동안 강원지역 시·군의 축산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청, 강원지역 지자체(9개 시·군)와 협력을 통해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했고, 올림픽 경기장 및 주요도로 주변 39개 농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지역 공무원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방법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원지역 축산악취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내 농가의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관리원은 강원도의 악취방지 T/F팀과 협력하여 경기장 및 주요도로 주변 중점관리농가 39개소를 대상으로 농가별·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법 지도 및 축산악취저감 현황을 주 2회씩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원은 올림픽 개최일 전까지 중점관리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현장 출동을 통해 축산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축산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원 전문인력이 강원도에 상주·파견 근무하는 현장순찰반을 운영해 축산악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쾌적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